야만적이고 참혹…계엄군 휩쓸고 간 옛 도청 내부

사진 200여점 41년만에 첫 공개

5·18 당시 월스트리트 기자
노먼 소프 기증 자료 특별전
윤상원 열사의 불에 탄 주검
문재학·안종필 최후 모습 등 담겨

6일 옛 전남도청 별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 '노먼 소프 기증자료 특별전' 기자 회견에서 전남도청 복원추진단 관계자가 전시 사진과 물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열 여섯살의 앳된 소년인 광주상고 1학년 문재학·안종필 열사는 친구끼리 나란히 숨진 채 발견됐다. 문 열사는 목 부위에 총을 맞고 누운 상태에서 숨졌으며, 안 열사는 복부에 총을 맞고 엎드린 채 사망했다.

두 열사의 사망 사진에는 주변에 총기는 찾아볼 수 없으며 빵조각만이 떨어져 있었다. 여기에 사망 장소도 사무실이 아닌 건물 뒷편의 복도 한가운데 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격렬히 저항중이 아니라 잠시 휴식중이거나 피신 중에 계엄군 총탄에 숨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이 휩쓸고 간 옛 전남도청의 생생한 내부 모습이 처음 공개됐다. 당시 상황은 참혹하고도 야만적이었다.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로운 사진과 자료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아직 발굴하지 못한 5·18 진상을 담은 기록들도 조속히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관련화보 10면〉

6일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복원추진단)에 따르면 7일부터 7월31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노먼 소프(Norman Knute Thorpe) 전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기증한 5·18 관련 자료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노먼 소프가 1980년 5월 21일~27일까지 광주와 목포 등을 오가며 촬영한 사진 등 200여 점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노먼 소프는 1980년 5월27일 오전 7시30분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끝나자, 언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도청에 들어가 계엄군이 정리하기 전 내부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노먼 소프가 찍은 경찰국장실 복도 사진의 시계가 7시 50분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불에 탄 주검을 포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5·18 막내 시민군이자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16)군, 그의 친구 안종필(16)군 등의 최후 모습도 사진에 담겼다. 복원단은 유족의 동의를 얻어 '특별영상실'에서 희생자의 발견 위치와 성명, 시신 이동 장면 등을 영상으로 선보인다.

문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81)씨는 "얼마 전 복원단 직원들이 와서 재학이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했다"면서 "사진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도청 복원과 5·18진상규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전시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 영상에는 노먼 소프의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한 것으로 도청에서 최후까지 항쟁한 9명의 열사와 YWCA 앞의 신원미상의 열사까지 총 10명의 열사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5·18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시민군의 대표 윤상원 열사의 시신과 김동수 열사의 시신도 공개된다.

이번 사전은 노먼 소프 기자와 이재의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노먼 소프는 1980년 5월21일 광주를 찾았고, 22일 전남도청에서 대학생 시민군으로 활동중이던 이씨를 인터뷰하며 인연이 시작됐다. 이후 1997년 한국을 방문한 노먼 소프가 취재수첩에 적었던 이씨의 이름을 기억해 이씨를 찾았다.

이후 최근까지 연락하던 중 이씨가 가교 역할을 해 노먼 소프의 사진이 도청복원추진단에 전달됐다.

노먼 소프는 "젊은 세대가 이번 전시를 통해 1980년 당시 광주가 민주주의를 꽃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교육청 10일부터 5일간 EBS 수능 대비 레벨업 특강

전남도교육청은 고3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를 돕기 위한 'EBS 수능 대비 레벨업 특강'을 오는 10일부터 5일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남진로진학지원포털(jdream.jne.go.kr)을 통해 9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은 뒤, 영역별 선착순 4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탐구, 과학 탐구 5개 영역별로 5일간 매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이번 특강에서는 영역별 출제 방향 및 학습 방법을 안내한다.

또 과목별 핵심 출제유형과 EBS 연계방식 변화에 따른 학습법을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북구 아파트 경비 근무환경 개선 사업 추진

광주시 북구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청소원 등 직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21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임대 및 사원아파트 제외)을 대상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사(지하실 불법 증축시설 지원 불가), 휴게실 증축 및 개보수, 냉난방기 및 환기시설 설치 등이다.

대상단지 선정은 이달 중 시설물의 노후상태, 단지규모 및 자부담 가능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11~12개 단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이 넘었거나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변경하는 공동주택 등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선대 대학일자리센터 17·18일 글로벌 취업 설명회

조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오는 17·18일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취업 설명회 Cheer Up! 1차'를 개최한다.

조선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참여 가능한 '글로벌취업 설명회 Cheer Up!'은 해외 취업 시장 현황, 인재상 등 해외진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참가자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취업 설명회와 글로벌 기업 설명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코로나 팬더믹 이후 변화된 해외 취업 전략을 안내하고, 국내 글로벌 기업 분석과 취업 성공을 위한 5가지 방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자녀돌봄 품앗이로 해결한다

광주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부모 주도 8개 품앗이 그룹 활동

광주 서구가 이웃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중심의 자녀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구 쌍촌동 시영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자리잡은 공동육아나눔터는 서구에 사는 18세 미만 자녀와 부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주민들에게 자녀돌봄을 위한 육아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오감발달 충족 영유아 프로그램을 비롯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세계 여러나라 탐험기', '자연과학 꼼지락 교실', '상상공간 미술 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특히, 다른 돌봄 시설과의 가장 큰 차이는 부모가 돌봄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 운영위원회를 통해 돌봄 방식과 프로그램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이웃간에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해 육아정보 공유 및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8개 그룹의 품앗이 그룹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내외 활동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책, 장난감, 교구 등을 지원해 육아 부담을 덜고 열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용료는 무료이고, 회원 신청 및 프로그램 이용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373-0072)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시구제'도 불합격, 의대생 33명 행정소송

복지부 "두 번 기회 줬는데…또"
의대생들 "하반기 실기 기회 줘야"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후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해준 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66명 중 33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재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 66명 중 33명이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세 번째 기회도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올해 1월 재응시 기회를 열어줬다.

2709명이 응시한 재시험에는 97.6%가 합격했고, 불합격자는 66명에 그쳤다.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줄 당시 올해 1월에 응시한 학생은 9월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고, 불합격시 내년 9월 시험을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시는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합격자가 된다. 예외적으로 필기와 실기 중 1개만 합격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에 한해 합격한 시험과 동일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필기시험만 합격하는 경우, 같은 회차 실기시험과 다음 회차 실기시험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대생들은 합격한 제85회 필기시험과 동일 회차인 제85회 실기시험은 본인들이 거부했고, 제86회 실기시험은 이미 상반기 시험에 응시해서 불합격했다.

이들은 올해 1월 시험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매년 하반기 정기 실기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재시험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소송 제기 의대생들은 필기 시험 합격자는 당 회차 실기시험과 다음 회차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만큼 하반기 실기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